

“아기 얼굴이 비타민...천직인가봐요”

2018 **3월**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4 에덴병원 신생아실 안신혜 간호사

고교시절 간호사 보며 꿈 키워
병동 위생 민감해 긴장의 나날
6년차 되니 3교대 고단함도 즐겨
“저출산 체감...아이 많이 낳았으면”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 안신혜 간호사가 4일 신생아실에서 갓난아이를 안아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갓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품에 안겨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4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에서 만난 안신혜(여·29)씨는 6년째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생아 전문 간호사다.

안 간호사는 “처음에는 갓난 아이를 보고 만지면 부시질 것 같아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면서 “천성이 신생아실 간호사인 것 같다”라며 활짝 웃었다.

안씨가 근무하고 있는 에덴병원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는 늘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안씨는 병원에서 산모가 낳은 아이가 신생아실을 거쳐 무사히 엄마 품에 안겨 되돌릴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평균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기간은 산모가 아이를 자연 분만으로 낳은 경우 2~3일, 제왕절개로 낳을 때는 7~8일이다. 이들은 신생아 목욕부터 기저귀 갈기, 약 투여, 체온체크 등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진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신생아실의 경우 위생과 보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탓에 긴장의 연속이라는 게 안씨의 설명이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신생아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생아실의 간호사들은 습관적으로 수시로 손을 씻고, 특수파트복을 입고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안 간호사는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병원 신생아실 관련 사고 소식이 나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그럴 때 마다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등 마음을 다잡는다. 산모들과 가족들이 전체 산부인과 의료체계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이 의료인들의 인식과 병원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간호사가 천직이라는 안씨가 병원의 여러 진료과 중 산부인과, 그리고 신생아실을 선택한 것은, 대학 시절 광주기독병원 신생아실에서 실습하면서 아이

들을 돌보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안 간호사는 “실습 당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들릴 정도로 좋았다”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안 간호사에게도 고민은 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저출산의 현실 때문이다.

안 간호사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평균 1.2%로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도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 안씨가 근무하는 에덴병원의 경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하루 평균 20여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나, 지난해 기준 8~1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안씨가 입사한 2012년만 해도 신생아실에는 60~70명의 신생아들로 북적였지만, 요즘은 20여명 정도만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신생아를 눕혀 놓는 침대(침대)도 80여개에서 30여개로 절반 넘게 줄었다.

안씨는 “병원에서 만난 일부 산모들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녀를 1명만 낳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 “지난 12월 병원에서 9번째 아이를 출산한 다동이 산모에게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도 다동이 엄마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안씨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프리카 등 의료환경이 낙후한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며 새 해소망을 전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교대 총장 공백사태 끝나나

3월 중순 선출...9일 교수회서 확정

광주교육대학교가 이르면 오는 3월 중순께 새 총장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교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는 3월 중순께 선거를 치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교대 총장은 14개월째 공백 상태다.

광주교대는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광주교대는 전국 최초로 총장 선출 초안 도출 과정에 대학 구성원(교수,직원,학생)이 참여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2일 총장 선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

일 교수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교대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학생 투표 참여율은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교대는 직선제이던 총장 선출 방식을 2011년에 간접선거 방식인 공모제로 바꿨다가 지난해 11월 6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

광주교대는 지난해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에서 김모·강모 교수를 1·2순위로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김 교수와 강 교수를 다시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재추천을 요구, 총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119 지난해 하루 평균 557차례 출동

구급 59%...오후 2~3시 최다 발생

전남119는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 557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신고 접수 건수는 총 51만829건이며, 이 중 원격 처리 등을 뺀 실제 출동 건수는 20만3364회였다. 하루 평균 557.2회다.

유형별로는 구급 11만9332건으로 58.7%를 차지했다. 이어 구조 3만4902건, 화재 1만360건이었다. 기타 생활서비스 3만8770건이었다.

출동 후 오인 신고 등을 뺀 실제 조치한 건수는 11만8383건으로, 전년(11만3471건)보다 4.3% 늘

었다. 이 중 화재 조치는 2963건, 구조 조치 3만 1727건, 구급 조치 7만8156건, 기타 생활서비스 5537건으로 집계됐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118명(사망 19·부상 99명), 재산피해는 248억원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야외 1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574건, 자동차 309건 순이었다. 주요 원인은 부주의(59%)였으며, 오후 2~3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119는 구조 출동을 통해 4717명을 구조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4213건, 산악 430건, 수난 334건 등이었다. 모두 8만129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출 07:41 망몰 21:18
해짐 17:34 달짐 10:07

소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 건조하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2/4	보	성	구름많음	-4/4
목포	구름많음	-2/4	순	천	맑음	-1/6
여수	맑음	0/3	영	광	구름많음	-4/3
나주	구름많음	-4/4	진	도	맑음	1/4
완도	구름많음	-1/5	전	주	맑음	-4/3
구례	맑음	-5/4	군	산	맑음	-3/3
강진	구름많음	-2/5	남	원	맑음	-4/4
해남	구름많음	-2/4	혹	산	구름많음	1/5
장성	구름많음	-4/3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5
	안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5
	안바다(동)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안바다(서)	북~북동	1.0~2.0	북서~북	1.5~2.5

물때

목적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9:25	16:56	04:11	11:36
	22:03	11:36	05:02	23:48
여수	05:02	11:36	17:35	23:48

주간 날씨

날짜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날씨	☀	☁	☁	☁	☁	☁	☁
기온	-1/6	-2/6	2/5	-2/4	-3/2	-6/1	-5/3



생활지수

☀	높음
☁	높음
☁	보통
☁	보통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벌교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전미역 250g **3,800 원**

(주)벌교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왕암길 185-05 Tel. 061)745-9907

꼬막볶음고추장 **5,850 원**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히팅록 소고기맛 **4,500 원**

제품 설명

- 발명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 이웃도어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히팅록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물기업인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물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 원**

전복분말(개당) **15,000 원**

조개분말(개당) **7,000 원**

(주)아침가리 대표 김영수

구매문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벌교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